

목포권

야간 벚길 열리니 섬 주민들 웃음꽃

신안군이 지난해부터 섬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야간 연장운항을 적극 추진,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목포발 비금·도초도행, 임자도행 여객선의 출발시각을 크게 늦췄는가 하면 1일부터 목포발 흑산도행 출발시각을 시범적으로 2시간 늦춰 운항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일 “목포를 오가는 섬지역 주민들에게 1일 생활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목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의 출발시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면서 “그 효과에 따른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운항방안을 모색할

신안군 작년부터 비금 등 6개항로 연장 운항

주민들 “일일생활권 실현” 이용객 크게 늘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지난 2006년 12월 ‘신안군 야간연장 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 2007년 1월 목포북항과 신안 압해도간 야간 증회운항을 시작했다.

56개 주요도서, 19개 항로에 18척의 여객선이 일출전, 일몰 후에는 운항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은 전 해양수산부 고시가 10여 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정되면서 일부 항로의 야간운항에 족쇄가 풀린 셈이다.

태, 목포~안좌 등 6개 항로가 열려 있다.

목포발 비금·도초행은 오후 4시30분에서 6시30분으로, 임자행은 오후 6시에서 10시30분으로 크게 늦춰졌다. 또 흑산도행은 1일부터 오후 1시50분에서 4시로 늦춰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

비금도의 경우 야간 운항 전인 지난해 1·2월 이용객은 2천247명과 3천622명이었으나, 1회 추가 운항중인 올 1·2월에는 7천720명과 6천22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임자도 주민 김모(56)씨는 “목포에

나가 일을 보고 오후 6시 30분 마지막 배 출발시각을 맞추자면 정신이 없었다”면서 “지난해부터 출발시각이 밤 9시로 늦춰져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고 반겼다.

그러나 이같은 야간 연장운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등 야간벚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일부 여객사업자를 위한特惠적 사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야간벚길이 열린 이후 섬주민들이 목포 등지에서 체류시간을 늘리면서 1일 생활권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 같다”면서 “이에 따라 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않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전남도 22개 시·군기 계약

전남도는 2일 오후 박재영 행정부지사과 22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군 기 계약식’을 가졌다. 시·군기는 1년 내내 힘차게 팔리며 애항심과 자긍심을 북돋아 도민 모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청)

“해상국립공원내 자원 밀반출 안돼요”

다도해서부사무소, 집중단속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지난날 27일부터 해상 국립공원내 자원자원의 밀반출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서부사무소는 목포해경과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회귀 야생약초(하수오)와 무늬모듬 밀반출 등 총

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서부사무소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8배에 달하는 신안군과 진도군 일원 1천158km의 광활한 면적을 적은 인원과 장비로 관리하고 있어 불법 행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부사무소는 순찰이 어려운 주요 도서지역에 현지 지역주민을 국립공원 지킴이와 자원

보도단으로 적극 채용,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생태계의 보고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 ‘염전체험’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에

문화재청 평가, 국비 3천만원 지원받아

대한민국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의 태평염전에서 운영되는 ‘증도 생생(生生) 염전체험’ 프로그램이 문화재청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에서 친염염을 직접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염전체험’사업이 문화재청이 평가한 ‘2009년 지방자치

단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에 뽑혀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증도 태평염전은 단일규모 국내 최대 염전으로 등록문화재 제360호에, 증도 석조소금창고는 등록문화재 제362호에 올라 있으며 특히 석조소금창고는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염전시 설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염전체험 프로그램은 이를 등록문

화재를 활용해 방문객들이 수차를 돌리며 소금을 만들어보고 소금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소금에 대해 설명도 듣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호평받았다.

전남도는 올해도 소금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1일 2차례(오전 11시, 오후 3시) 실시하며 체험 희망자는 소금박물관 홈페이지(http://www.saltmuseum.org) 등을 이용해 예약을 하거나 현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무안 농특산물 서울시 관측전

GS 봄맞이 한마당 행사

무안군이 지난날 서울에서 열린 ‘2009년 GS 봄맞이 한마당 행사’에 참가해 농특산물 관측활동을 펼쳤다.

GS마트와 슈퍼마켓의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주)GS리테일 주최로 지난날 24~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마당 행사에서 무안군은 고구마·양파·백련 가공특산물 등을 전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무안의 맛과 멋을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에서 서삼석 무안군수와 허승조 (주)GS리테일 대표는 현재 40억원의 농특산물 거래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안군 출자회사인 (주)무안항도량 유통공사를 통한 지자체 협력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대도시 유통업체 전시회는 물론 아파트부녀회, 학교급식단체 등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관측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성수기자 dss@

진도 검정쌀 경쟁력 높인다

진도군이 특산물인 ‘흑미’의 새로운 품종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흥열 박사팀과 함께 ▲흑미 품종시범포 ▲지역적응 및 생산능력 검정 흑미계통 적응성시험 ▲흑미품종 이양적기 시험 등을 통해 고품질 흑미품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군은 생산성과 도복, 외관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도지역에 알맞은 고품질 흑미품종 선발, 진도흑미 특산화를 위한 품종 조기개발, 흑미품종 이양적기 시험을 거쳐 흑미 주품종인 ‘상해향미’의 문제점(퇴화, 잡수, 줄무늬 앞마름병 취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 대파, 배추 등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잡개 35ha, 들깨 4ha, 옥수수 3.3ha, 땅콩 2.7ha 등 특색작

적응력·이양적기 시험 등 고품질 흑미품종 개발키로



특산단지 조성 등 새로운 작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곽용택 진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진도농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돈 되는 농업을 모색하고, 경쟁력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신안 13개 읍·면

‘버스공영제’ 실시

신안군이 섬지역 교통불편을 없애기 위해 추진해온 버스공영제가 최근 13개 읍·면에서 실시돼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2007년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어 임자면을 시작으로 지난 해까지 13개 민간 버스업체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목포와 연륙면 압해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에서 공영버스 시대를 열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여건 때문에 이동권 제약이 받았던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버스공영제로 상당부분 없어졌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농업용수를 확보하라

무안군 비상근무제에 전환

이달말까지 가뭄대책 추진

무안군은 지속적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가뭄대책상황실을 군청 건설교통과와 각 읍면에 설치하고 농업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하반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수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 하되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비 투입을 병행해 이달 말 까지 1단계 가뭄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저수율이 70% 이하인 저수지에 대해 하천수, 관정 등을 이용한 물 채우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가뭄대비 비상근무제에 전환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들샘, 포강, 관정 등을 개발중이다.

관정 무안군은 지난해 하반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수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 하되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비 투입을 병행해 이달 말 까지 1단계 가뭄대책을 완료할

대인동상업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들임
상가 전문소개매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율씨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건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매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직접거래 010-8004-6669
고흥 녹동 고속터미널 옆 (봉암리조선소 확장지역)
상가부지 500평~700평 (당 50만원)
시세절반 가격
고흥 특량도(섬) 800평, 평당3만원
남시터, 별장지역으로 최적
고흥 바닷가 전원주택지 (답) 812평 (현황도로점)
평당 1만2천원
금 1천만원
고흥군 조용함 바닷가 외딴지 전세 2천 노부부 생활비 제공함.

금보부동산컨설팅
▶ 판매매매
▶ 건물매매
▶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 주유소매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수원지구 상업용지
청단지구상업용지
주유소
광주지역 특지
신창택지개발지구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현대공인중개사
토지매매
찾는물건
●부지 최적지
●국가 산대(채권) 인, 5561㎡
●전시장 정비공장부지
●광충간 도로변
●신촌중 주차지역 대지337평
●캐나다 식당부지
●광충간 도로변
●송정동, 상업지역 대지 294㎡
●청고 공장부지-벽진동
●다지 697㎡ (212평) 매대가 2억5천만원
●공정 시장 창고 정세시장
●매월동 준공업체지
●36미터 도로변 2,780㎡ (약1840평) 매대가 23억
●매기가 23억
●봉선동, 남구청 인근 이마트 밑의 지역, 2층 일반지역 267평 매대가 8억
●나주 남평 관리지역
●-오양원 공장 들류창고
●현제 농장, 약5,000평, 매대가 180만, 상업용, 보양도 가능함

수원지구
월드공인중개사사무소
062) 959-1033, 019-608-3372
건물분양 및 임대
● 수원회고 요지 상업지역 35*12m 버스정류장 옆
월드프라이자 6층건물 (3월 15일 준공)
금은방, 안경점, 브랜드 의류, 슈퍼, 식당
한의원 및 병원 학원 및 독서실 등
● 송원프라자 즉시 입주 5층 건물 ●
슈퍼, 식당, 사무실, 학원, 독서실
※상업지 및 원룸부지 급구함.
아파트 분양권: 마이너스 최저가 다량보유
우미, 현진, 코오롱, 모아, 새한, 대주 등